

바라몬연

바라몬연은 선명한 색으로 그려진, 손으로 직접 만드는 연으로 노려보는 도깨비의 얼굴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도깨비와 맞서는 무사의 투구를 도깨비가 물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무사의 강인한 인격과 대담무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남자아이를 위한 명절’로 알려진 5월 5일을 태어나서 처음 맞는 남자아이에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바라몬연을 선물하는 것이 고토의 전통입니다. 이 선물에는 아이의 안전, 성공, 용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커다란 종이연은 각 지역에 있지만, 도깨비와 투구 디자인이 특징적인 연은 고토에만 있습니다. 연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이 그림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수 세기 전의 민화에는 도깨비에게 물렸으나 투구가 이를 막아 무사했던 무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바라몬 무사는 와타나베노 쓰나(953~1025)라고 전해지며, 예술과 민속 전승에서 도깨비를 퇴치한 영웅으로서 칭송받고 있습니다.

바라몬연은 열네 개의 대쪽을 교차시킨 틀에 그림을 그린 와시를 붙여 만듭니다. 모든 연에 도깨비와 투구가 그려져 있지만 연의 색깔이나 그 외의 세부 장식은 만드는 사람이 선택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도깨비의 머리 위에 활 모양으로 삐죽 나오게 붙여진 좁고 긴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는 연을 띄우면 진동하여 ‘우나리’라고 하는 독특한 소리를 냅니다. 이 무서운 소리는 숨어 있는 불길한 것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바라몬이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바라카몬’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고토 방언으로 ‘바라카몬’은 쾌활하고 떠들썩한 사람을 뜻하는데, 연의 소란스러움과 건강하고 개구쟁이인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